



한국인의 입맛 김치 '짠맛 등급표시제' 논란

“나트륨 너무 많다” VS “맛 획일화 초래”

세계적인 건강식품의 하나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전통식품인 김치. 하지만 매일 먹는 소비자에게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의 주공급원이라는 오명을 얻고 있다.

김치의 '짠맛 등급표시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한국소비자원과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시장에서 판매되는 포기김치 16종에 대한 나트륨 함량을 분석한 결과 등을 담은 자료를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우리나라 국민이 섭취하는 나트륨 가운데 김치를 통한 섭취가 가장 큰 비중(24.5%)을 차지한다"며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김치의 짠맛 정도를 등급화해 표시하는 '짠맛 등급표시제 의무화'를 관계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 기관이 제안한 등급표시제는 김치를 '짠맛·보통·저염'으로 나눠 이를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다. 등급표시 기준(안)에 따르면 나트륨 함량과 염도가 짠맛김치는 100g당 787mg·2% 이상이며, 저염김치는 472mg·1.2% 이하다. 보통김치는 나트륨 함량 643mg을 기준으로 ±20%다. 643mg은 이번에 분석한 16종 김치의 나트륨 평균 함량이다.

사실 김치의 나트륨 과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나트륨은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지만 과다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해 건강을 해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트륨 섭취를 1일 4700mg에서 3000mg으로 낮추면 나트륨 관련 질환 예방에 따른 의료비 절감과 건강수명 연장 등의 사회적 편익이 13조원에 이른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건강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김치의 식습관도 저염식으로 변화가 필요한 이유다.

하지만 김치에 짠맛 등급 표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김치업계는 강력 반발하



대형마트의 식품매장을 찾은 한 고객이 포장김치의 성분을 확인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한국소비자원

짠맛·보통·저염 나눠 의무화

한국인 식습관 변화 필요할 때

고 있다.

(사)대한민국김치협회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김치만을 타깃으로 삼아 짠맛 등급표시제를 의무화하면 '김치는 짠 음식'이라는 의식이 고착화 소비가 감소하게 되어 김치 맛의 획일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포시제는 김치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되 단계적·차등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김치 맛은 한국인의 입맛이고, 긴 세월 형성된 문화인 만큼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에는 시간을 필요하다"면서 "실제 지역환경에 따라 김치 맛은 차이를 보이고 있

■ 김치업계

“김치는 짠 음식” 의식 고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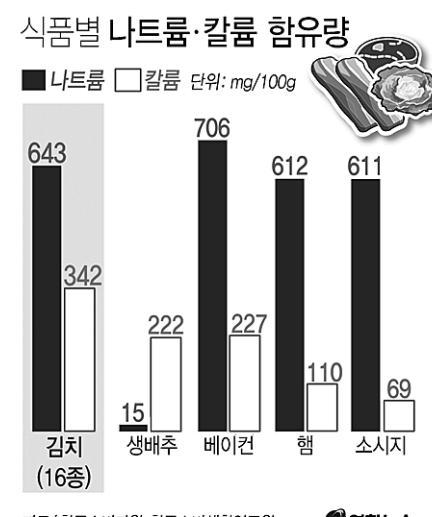
소비자 입맛 따라 대응해야

고, 짠맛 김치도 그 지역 전통식품으로서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제조김치의 맛이 소비자 기호에 따라 설정된 것이므로 제조업체에서의 일방적 제공이 아니라 소비자의 선호에 따른 시장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드는 생산업체의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염김치를 생산하려면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저온유통 시설을 보완해야 하고 저염에서도 잘 발효되는 젖산균을 발굴·보급해야 하는 점도 영세한 김치업체 입장에서는



자료/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연합뉴스>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김치업체의 70% 이상이 연매출 5억원 미만의 영세업체다.

소비자와 김치업계가 나트륨을 줄이는 식생활을 보급하는 문제를 놓고 짠맛 등급표시제와 시장 변화 중 우선은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추석 맞아 가격표시제 집중 점검

산업통상자원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내달 2~13일 2주간 유통업체의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일제 지도·점검을 한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시 정확한 가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불가 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백화점·슈퍼마켓·편의점 등은 제품의 판매·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가전 등 27개 품목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는 금지된다.

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

부,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동으로 진행된다.

산업부는 매장면적 165m² 미만의 슈퍼마켓과 과자·라면·빙과류 등 가공식품의 판매 가격 표시 여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아울러 내달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그동안 대규모 점포에

서만 시행된 단위가격 표시를 기업형 슈퍼마켓(SSM)으로 확대하고 표시크기 판매 가격은 15포인트, 단위가격은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해물명가청해진

월계동 892-3 첨단지구대금풀 풍천장아앞
아구찜,꽃게찜탕,조개찜,해물탕찜
점심시간 : 해물칼국수, 해물뚝배기, 낙지비빔밥
☎(062)974-4444

YONAMJA(첨단점)

월계동 889-2번지 LCT위2층
파스타, 피자
샐러드, 스테이크전문점
☎(062)973-5201

커피블루

오치동 872-3 북부경찰서정문앞
갓볶은 신선한 커피, 팔빙수
☎(062)267-2238

백년한우본가

북구 설죽로 320번길 26-1 오치사우나앞
한우전문점
☎(062)266-5055

정열식당

동구 금동 15-2번지
길비찜,길치조림,생선구이
각종탕,꽃게무침
대표 노수연
☎(062)233-7979

홍서각

동구 궁동 14-1번지(중앙초등학교정문앞)
고급표구제작 그림판매, 동양화, 표구전문
고(古) 미술품전당포
☎(062)236-3259

커피홀릭

충장로3가11번지 이프유정문건너편2층
직접 볶은 신선한 커피
대표 김현오
☎(062)229-0230

웨버하우스

동구 광산동 78-1번지 인산빌딩 8층
즉석 바베큐, 레스토랑, 샐러드바
☎(062)226-0003

장흥한우촌

신안동 262-1 빛고을찜질방 주차장앞
고기류, 식사류, 후식류, 주류등
☎(062)528-4209

YONAMJA(충장로점)

충장로2가 128번지 디아소2층
피스타, 피자, 필리프
샐러드, 스테이크 전문점
☎(062)229-5252

이건마루인테리어

회정동 723-12번지 벨엘교회앞
건축자재 인테리어 전문
대표 김진환
☎(062)433-6685

서원식당

동구 중앙로 196번지
백반저문, 육닭, 윗오리, 백숙
예약환영
☎(062)227-9769

화순민물추어탕

학동 901-45번지 뽕뽕디리앞
100% 자연산 민물고기 취급
☎(062)233-7045

노다지식당

봉길2동 73-10번지 봉봉식당앞
닭발구이, 고기찌개, 뒤양념불고기 전문
대표 이금주
☎(062)651-4563

피오레공인증개사사무소

북구 연제동 연제1차 대우피오레상가 101호
APT, 상가, 복吏, 주택, 원룸, 투룸
토지, 임대 및 매매일선전문
각종부동산컨설팅 상담환경
☎(062)432-4324

제일반점

금남로5가 123-8번지 우리은행사거리
중화요리 전문
☎(062)223-6395

젊은 감성의 'NC 웨이브 충장로점' 입점 완료 기념

버터·NC피스 매장 할인 행사



젊은 감성과 쇼핑의 새 물결을 물고오고 있는 이랜드리테일 NC 웨이브 충장로점이 전관 입점을 완료하고 기념 축제를 연다.

입점을 마친 '버터'(8층)와 'NC 피스'는 이랜드리테일이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새로운 '킬러 콘텐츠'로 지난 그랜드 오픈에서 광주에 첫 선을 보인 SPA(자사의 기획브랜드) 상품을 직접 제조해 유통까지 하는 전문 소매점)브랜드 '슈펜', '루肯' 등과 함께 NC 웨이브 충장로점 더욱 차별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던하우스에서 개발한 국내 최초 캐릭터 SPA(자사 캐릭터 라이프 스타일샵 '버터'는 충장로점이 전국 1호 매장이다. 캐릭터 라이프 스타일샵(Character Life Style Shop)이라 칭미있고 특색 있는 캐릭터들이 반영된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한 스트리트 형 쇼핑 공간을 말한다. 버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코코몽을 비롯해 유럽파니 동물농장 컨셉의 팬케어,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의 바리스타고인 원앤하프 등 8개의 캐릭터를 선보인다.

국내 최초 셀프형 초저가 메가샵인 'NC 피스'는 자라, 아베그롬비, 폴로, 캡, 나이웨스트 등 국내외 유명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의 패션잡화 이월 상품을 70~80% 할인 판매한다.

전관 입점 그랜드 오픈을 기념해 충장로점 자체에서도 대대적인 기념 이벤트를 펼친다.

가을 신상품과 신하기 상품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하는데, 신발 SPA 브랜드 슈펜은 충장로점에서만 단독으로 신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우 음식점 62%가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음식점 중 62%가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서울 시내 한우 판매 음식점 중 68개소의 원산지와 가격 표시를 조사한 결과 42개 소(62%)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에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가 미흡하거나 거짓 표시한 곳은 11개소였다.

특히 한 음식점은 유전자 분석 결과 한우가 아님에도 국내산 꽂갈비살이라 고 거짓으로 표시해 판매했다.

나머지 10곳은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

/연합뉴스

지 않거나 한우인지 육우인지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68개소 중 37개소(54%)는 식육 100g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령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유통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음식점의 가격 표시와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